

지역경제 ‘후폭풍’… 협력업체 어떡하나

금호타이어가 비정규직노동조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법인계좌와 압류돼 자금운영에 발이 묶이는 등 심각한 존폐 위기에 처했다는 광주일보 보도<광주일보 2020년 7월 29일자 14면·31일자 8면>와 관련, 지역경제 후폭풍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당장 금호타이어는 직원들의 올 여름 휴가비를 지급하지 못했을 뿐더러, 일부 협력업체의 납품 대금마저 결제하지 못했다. 납품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협력업체 상당수가 광주·전남지역 소재 기업으로, 대금 결제가 미뤄짐에 따라 협력업체들의 경영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노조가 압류 취소를 하지 않으면 금호타이어가 취할 수 있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데다, 납품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장기화되면 영세한 협력업체들의 줄도산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2일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최근 금호타이어는 광주공장과 곡성공장에 원자재를 공급하는 업체를 비롯해 일부 설비협력업체와 원부재료 납품업체에 지급해야 할 납품 대금을 지불하지 못한 채 결제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지난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5일간 국내 공장을 멈추고 직원들이 휴가에 들어가면서 노사 임금·단체협약에 따라 1인당 50만원씩 지급해야 할 휴가비 역시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부채는 2조원대에 달하고, 매달 금융권에 갚아야 할 이자만 60억원 수준이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악화가 더해진 상황에서 법인계좌까지 압류되면서 직원들의 급여는 물론, 협력업체의 대금마저 지급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인

금호타이어 법인 계좌 압류 자금운영 발 묶여 존폐위기
일부 협력업체 대금 결제 연기…노·사 상생 지혜 모아야



비정규직 노조의 법인계좌 압류로 자금운영에 발이 묶인 금호타이어가 최근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결제를 미룬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내 협력업체는 대금 결제가 미뤄지면서 자금압박을 받는 등 지역경제 여파가 현실화되면서 경제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것이다.

이처럼 금호타이어가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과 동시에 그 여파가 광주·전남 협력업체로까지 번지면서 지역 경제계의 우려 역시 커지고 있다. 현재 금호타이어의 설비협력업체는 전국 550여개, 원부재료 납품 업체는 120여개 등 670여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에 소재한 업체는 설비협력업체 250여개, 원부재료업체 6개

등 256여개로 파악된다. 전체 협력업체의 38.2%가 광주·전남지역 업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자금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재료구입비나 물류비 등을 자신들이 먼저 선납하고 있는 형태여서 타격이 더 클 수밖에 없다. 경영을 위해 운영자금을 지출해야 할 날짜가 정해져 있어 대금이 늦어질 경우 당장 부족한 자금을 업체가 우선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한 협력사는 “영세한 업체들은 대금 결제가 미뤄지면 당장 직원들의 인건비를 주기도 어려워지고 대출을 알아봐야 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된다”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경영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사태까지 겹쳐 근심이 깊다”고 말했다.

문제는 노조에서 압류를 취소하지 않는 한 이번 사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협력업체들의 자금압박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고, 영세한 업체들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지역 경제계 관계자는 “법인계좌가 압류된 상태가 길어지면 신용도 하락과 주가하락 등 금호타이어가 심각한 경영위기에 몰리고 협력업체의 경영난도 예상된다”며 “이번 사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도 크다는 점에서 노조와 사측이 압류를 취소하고 타협안을 찾는 등 상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비정규직지회는 지난 1월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정규직 사원과의 임금차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 이후 금호타이어는 항소를 제기했고, 노·사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임금차액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등의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비정규직지회는 지난달 27일 1심 판결에 의한 임금 차액과 이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했고, 지난 30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법인계좌가 압류됐다. 채권압류에는 조합원 414명이 참여했으며, 이에 대한 임금차액은 204억여원에 달한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

코로나19 지역감염 7일간 ‘0’

광주시가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단계로 전환한다.

최근 7일간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지역 감염 상황이 방역당국의 관리시스템 내에서 통제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광복사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광주시가 지난달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뒤 33일만이다. <관련기사 2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2일 비대면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6월 27일 지역 감염이 발생하자 2차 대유행으로 판단, 곧바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150만 시민과 방역 당국이 ‘줄탁동시’의 노력을 한 결과 한 달여 만에 지역감염 확산을 차단하게 됐다”며 “나눔과 연대의 광주 정신을 보여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면서 각종 행정조치들이 해제되거나 기준이 완화된다. 우선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행정조치가 해

제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실내 체육시설도 다시 문을 열고 지역 어린이집도 3일부터 정상 운영한다.

프로야구도 4일 열리는 기아타이거즈와 LG트윈스의 광주 경기부터 입장이 가능해졌다. 프로축구도 16일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광주FC와 강원FC의 경기부터 관중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전체 관중석의 10%만 입장이 가능하다.

중고시설은 중위험시설로 기준을 완화하되,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계속 유지해 QR코드 사용 및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

다. 대중교통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현재 광주의 누적 확진자는 205명이다. 지난 2일 미국에서 입국한 30대 남성 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근 일주일간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중증환자는 3명이며 60병상에 확진자가 입원 중으로, 잔여 병상수는 107병상이다. 자가격리 대상자는 626명이다.

이 시장은 “1단계 완화로 다중이 접촉할 기회가 많아지고 밀집 접촉이 늘어나면 감염 위험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가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생활 속 거리두기를 강조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알립니다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

2020년 8월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광주일보사와 최진석(사단법인 새말새꿈짓 이사장)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가 함께하는 ‘철학자 최진석과 책 읽고 건너가기-한 달에 한 권 책 읽기’ 8월의 책으로 생텍쥐페리의 ‘어린왕자’가 선정됐습니다.

<관련 기사 16면>
올해 탄생 120주년을 맞는 생텍쥐페리의 대표작인 ‘어린왕자’는 삶의 성찰을 담은 이야기와 함께 아름다운 삽화가 어우러진 ‘어른들을 위한 동화’입니다.



“별을 보면, 별도 나를 본다. 별에게는 내가 별이다”

우리들은 일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부산스럽다. 특급열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면서도 무엇을 찾아가는지 모른다. 애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찾는지를 안다. 애들은 인형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고, 그래서 인형은 애들에게 중요한 것이 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혹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찾는 마음은 어디로 갔을까?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어딘가 우물이 숨어 있어서 그래.’ 나에게 우물은 무엇인가. 나의 우물은 도대체 내 속 어디에 숨어 있는가. 내가 별을 보면, 별도 나를 본다. 별에게는 내가 별이다. 내가 별임을 한 번이라도 알다 가자.

光州日報社

민주 당권주자 릴레이 인터뷰 - <1> 이낙연 후보

“혁신도시 시즌2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계적 배분 아닌 실질적 균형 고려”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 2일 혁신도시 시즌2와 관련 “기계적 배분이 아닌 실질적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산업과 연계된 기관들이 옮겨가 지방과 기관 모두 이로운 상승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광주일보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혁신도시 1차 이전을 통해 16개 공공기관이 광주전남 빛가람혁신도시로 옮겨왔지만 여전히 전국 363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 43%, 충청권 23%가 몰려있고 호남권에는 단 8%만 소재해 있는 실정이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3·4면>

이 의원은 “제가 문재인정부 총리를 지내면서 가장 아쉬운 점이 바로 국가균형발전이었다”며 “‘혁신도시 시즌2’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면서 지방을 살리는 국가균형발전을 대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계적 배분이 아닌 실질

적 균형을 고려하면서도, 지역산업과 연계된 기관들이 옮겨가 지방과 기관 모두 이로운 상승효과를 노려야 할 것”이라면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정부와 정치권이 함께 속도를 내서 추진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독시적 동의’ 성범죄 법 적용 눈길 ▶6면
광주FC 임원상 멀티골 승리 견인 ▶18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메르세데스-벤츠가 또 한 번, 새롭게 보증하다

완전히 새로워진 메르세데스-벤츠 인증 중고차 Mercedes-Benz Certified

www.mercedes-benz-certified.co.kr



국내 수입처 최대 2개 전시장 보유



6년/15만km 이내
무사고 차량 조건 충족



국내 최초 세계적인 품질 평가기관
TÜV 검수 및 인증 완료



1년/2만km 무상 보증 수리 프로그램
(1년/2만km 선도로 적용)



차량 매입 프로그램



198개 항목의 품질검사

Mercedes-Benz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증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완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동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완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완동)